



## 기쿠노카이

기쿠노카이는 일본무용이 일본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서 또, 무용예술로서 우리 곁에 존재하기를 기원하며 1972년에 창립자 하타 미치요(畑道代)에 의해 설립되어 1976년에는 문화청 주최의 예술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986년에는 해외공연의 공적에 대해 외무대신 표창이 수여되었다. 1988년에는 아카데미상 특별명예상 수상작품인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꿈(夢)'에 등장하는 무용 장면에서 하타 미치요가 안무를 담당하고 단원들이 출연하여 호평을 얻었다.

1993년에는 제14회 마쓰오예능상무용특별상을 수상. 1999년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 한국문화친선교류,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준공기념식전에 출연. 2001년 문화청 이트플렌21, (재)도쿄도역사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뉴욕, 로스엔젤레스 공연을 개최, 또한 문화청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으로 2003년에 타이완, 싱가포르공연, 2004년 터키공연, 2005년 독일, 체코 공연, 2006년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공연, 2008년 브라질 공연. 2010년 2월 멕시코 공연을 실시했다. 같은 해 11, 12월에는 터키, 오만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쿠웨이트에서 공연을 열어 폭발적인 호평을 얻었다. 또 금년 여름에는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일본전통문화전에도 참가했다.



하타 미치요 畑道代  
(예명: 초대 오노에기쿠노리 初代尾上菊乃里)

교토 출생.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예술인 가부키의 근세 명배우로 불리는 제6대 오노에기쿠고로尾上菊五郎가 창설한 오노에류의 종가 초대 오노에기쿠노조尾上菊之丞에 입문. 무용·집단 기iku노카이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세계 51개국에서의 해외공연 실적을 갖고 있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꿈(유메)'의 안무를 담당하여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다.  
2010년 작고. 향년 73세.



# 기쿠노카이

## 일본전통무용 렉처공연

## 일본의 춤 - 전통과 창조

11월 7일(월) 오후 7시 30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대공연장



이 행사는 JENESYS프로그램(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계획)  
2011년도 일한청소년 예술교류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임.

주최 : 주한일본대사관 (재)일한문화교류기금 충북대학교



오늘 '기쿠노카이 일본의 춤 - 전통과 창조'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행사인 청주재팬워크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공연 개최에 있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기쿠노카이는 지금부터 39년 전에 새로운 일본의 무용, 시대에 걸 맞는 작품창작과 인재육성을 목표로 창립자 하타 미치요(畠道代)에 의해 설립된 무용단입니다. 일본에서는 20년 이상 무용단을 지속시키기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래 들어 일본 국내에서도 그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공연의 경우 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 기금의 후원으로 염원하던 한국에서의 첫 공식공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쿠노카이 일동은 이번 한국 공연이 성사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막 작품은 한국과 일본간의 우호관계가 한층 더 돋보이기를 기원하며, 여성 5명의 화려한 춤사위로 일본에서 크게 경사스러운 때에 추는 춤인 '고토부키기쿠산바소(寿菊三番叟)'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 가부키무용의 대표적인 작품인 '약교(石橋)'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 교겐무용 '보시바리(棒しばり)'는 술을 좋아하는 가신들과 그 주인의 이야기로 주인이 집을 비우기만 하면 술을 훔쳐 마시는 가신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던 주인은 계책을 세워 두 가신의 팔을 봉에 묶어두고 외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좋아하는 두 사람은 팔이 묶인 채로 서로 도와 즐겁게 술을 마시고 만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제2부에서는 전통과 창조를 테마로 일본의 정서가 풍부한 작품, 그리고 일본 각지의 향토무용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기쿠노카이(菊の会)' 일동, 진심을 담아 무대에서 춤을 추고자 합니다. 마지막 작품까지 편하게 감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하타 사토시 畠聰

### 출연자 명단



사타케 나가미쓰 佐竹永光



다카다 히데하루 竹田秀晴



다케이 노리오 武井則男



아오타 요시노리 青田義則



나카무라 테루유키 中村輝幸



나카무라 히데토시 中村英俊



요시오카 료마 吉岡諒真



가사이 테루코 葛西輝子



세기구치 히로코 関口裕子



나카야마 준코 中山順子



구도 가나코 工藤華奈子



구로이와 히토미 黒岩瞳



야마시타 히로코 山沢弘子



기타무라 히데코 喜多村英子



사카모토 아이 坂本愛

### Staff

- 무대감독\_스케이치 倉健一
- 조명감독\_스페스리보 (有)スペースラボ 이시이 다이스케 石井大輔
- 음향감독\_에디스그로브 (株)エディスグローブ 하야시 케이 林健司
- 대도구감독\_호리카와 도오루 堀川徹

- 기쓰케(의상담당)\_기쿠노카이 菊の会 스기와라 기미요 皆原君代
- 제작\_기쿠노카이 菊の会 하타 구미코 畠久美子
- 코디네이터\_기쿠노카이 菊の会 나카조 유카코 中條幸子

### 프로그램

#### 제1부

나가우타長唄 '고토부키기쿠산바소(寿菊三番叟)' 산바소는 노(能) 공연을 중 오기나(翁叟)라는 작품에서 생겨난 것으로 세상의 평화와 함께 농업과 어업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작품으로 신년을 맞이하는 자리나 축하식 등에서 공연돼 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여성무용수들이 산바소의 도입부와 '방울의 막'을 우아하게 선보인다.



#### 교겐무용狂言舞踊 '보시바리棒しばり'

옛날 어느 지방의 다이묘(豪族)가 외출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다이묘는 자기가 없는 사이에 술을 좋아하는 하인들이 술을 훔쳐 먹고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꾀를 낸다. 다이묘는 하인인 다로킨지와 지로칸지를 속여 디로킨지의 손을 뒤로 걸박하고, 지로칸지의 팔을 봄에 묶어 두고는 "이렇게 해두면 술에 손을 못대겠지" 하면서 안심하고 외출을 한다. 하지만 어떻게든 술을 마시고 싶은 두 사람은 술창고에 들어가 지혜를 짜내 결국 술판을 벌이고 만다는 유머 넘치는 작품이다.



#### 나가우타長唄 '약교석교'

일본무용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 백수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는 자신의 새끼를 계곡에 떨어뜨려 강인한 사자로 키운다고 전해내려온다. 이 작품에서는 어미사자(母)를 성장한 새끼사자(赤い鶴)가 꽃 종의 왕이라 불리는 목단의 가지를 들고 춤춘다. 그리고 끝으로 사자들은 기쁜하면서도 강인하고 용맹하게 갈기 휘날리며 춤을 춘다.



#### 제2부

##### 〈창작무용집〉



##### '곤자쿠모노가타리수昔物語'

신이 내려준 사계절과 그 풍광을 소중히 간직하기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작품.



##### '오보로쓰키요노사쿠라朧月夜の桜'

꽃들이 민발하는 평화로운 불날 저녁을 나타낸 작품



##### '하루오오도루 春を躍る'

불비람의 유혹에 사람들은 불을 만끽하고 도취하며, 쉼 없이 춤을 춘다.



##### '사쿠라쓰키요 桜月夜'

떠들썩한 수도의 거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 속에서 위엄을 간직하고 강한 생명력으로 피어나는 벚꽃. 그 중 한 그루는 아름다운 언분홍의 벚꽃, 또 한 그루는 옅은 먹빛. 두 나무는 부부의 연으로 맞아져 있는 것인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 '시이바누순세쓰 椎葉の春節'

아기씨들은 불이 오는 것을 느끼고, 맑디 맑은 불비람이 스치면 미모도 맑아져 춤을 춘다.



##### '이와이이다이코워이太鼓'

인간의 고동의 리듬을 느끼면서 생명의 요동과 영혼의 선율을 들려준다.



##### '난부다와라쓰미우타南部俵積み唄'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사전에 축하를 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다. 이 노래는 풍작을 축하하는 것으로 쌀 섬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상서로운 풍작의 춤이다.



##### '고이와이 御祝い'

예로부터 전해지는 바다 사나이들의 춤. 풍어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한 것.



##### '아사부로부시 弥三郎節'

이들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시집은 머느리를 심하게 대하고 마는 어머니의 심정은 지금이건 옛날이건 다를 바 없을지 모른다. 그런 가족의 풍경을 유머러스하게 전개하는 작품



##### '가사오도리 - 우산춤傘おどり'

기쁨이 계속될 때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며 시작된 이 춤은 후에 젊은이들을 단련시키는 춤이 되어 전승됐다.



##### '로쿠초 (六調)'

두 남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정열적인 리듬에 실어 악동적으로 추는 춤



##### '우시부카하이아부시와 아와오도리의 경합'

서로 다른 지역의 대표적인 춤을 히타 미치요가 구성하고 안무했다. 이번 공연에 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피날레를 장식하기에 걸맞도록 밝고 경쾌하게 기쁨을 표현한다.